

합참·防振會 연구개발토의회 개최

방위산업 연구개발토의회가 7월 24일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崔一根 합참 무기체계국장등 국방부 관계관 및 삼우급속 姜孝哲 사장등 방산업체 대표 1백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의회는 주제 발표에 이은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는 지상무기체계, 海空무기체계, 유도통신무기체계 등 3개 부문의 발전방향과 함께 軍 전력증강 방향등 4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軍 전력증강에 기여하며, 방위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위산업 연구개발토의회가 7월 24일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崔一根 합참 무기체계국장등 국방부 관계관 및 삼우급속 姜孝哲 사장등 방산업체 대표 1백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의회는 주제발표에 이은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는 지상무기체계, 海空무기체계, 유도통신무기체계등 3개 부문의 발전방향과 함께 軍 전력증강 방향등 4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연사인 오영관 대령(합참 무기체계

국)은 「지상무기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이를 장비별로 화력, 기동, 공병 및 화생방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13개 계열로 세분하여 발전추세를 설명하였다. 이어 김종식 공군 대령(합참 무기체계국)은 「海·空무기체계 발전방향」이란 주제아래 함정, 함포, 항공기등 3개 부문 7개 계열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문정일 해군 대령(합참 무기체계국)은 「유도통신무기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유도무기, 광학장비, 통신전자등 3개 부문 6개 계열로 나누어 최근의 발전동향을 밝혔다.

끝으로 金鍾 대령(합참 전략기획국)은 「軍 전력증강 방향」에 대해 전략상황 판단, 위협평가, 국방정책 기초 및 전력증강방향등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認知할수 있게 해주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의회에서 崔一根 소장은 『앞으로 방위산업진흥회와 합참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군과 방산업체간 대화의 창구로 발전시키겠으며, 1년 또는 2년에 한번정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주) 한국하이바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5(정곡빌딩 內)
	전화	(02) 784-0081
변경후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76-7번지
	전화	(02) 323-0081/86
	FAX	(02) 323-0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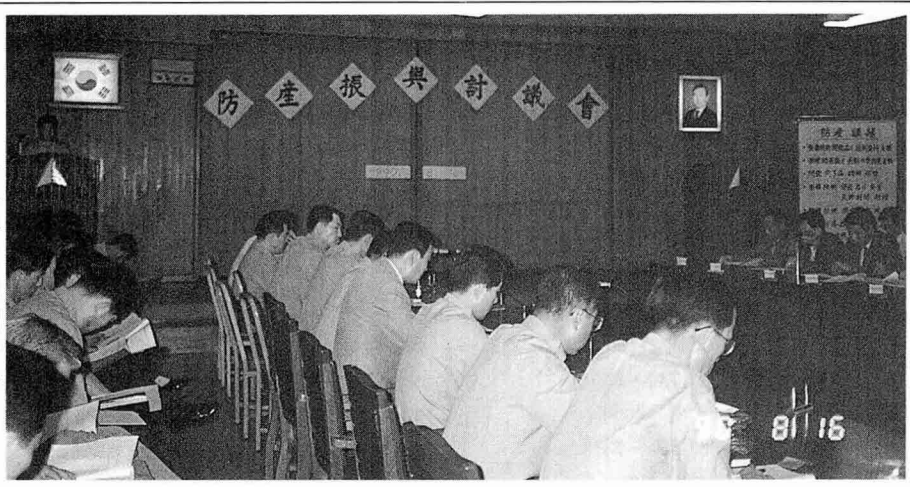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회장단이 합참의장을 방문, 건의하여 약 1년만에 개최된 합참·방산업체간 최초 토의회로서 군과 방산업체간 상호 의견교환과 정보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장차의 무기체계 획득관리와 군 전력증강 및 방위산업 진흥에 一助를 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물자 정비 및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방위산업 토의회 열려...

전력증강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위산업 토의회가 8월 16일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김상호 군수사령관 등 6개 관련기관 인사 및 대동기어 鄭泰現 사장 등 54개 방산업체 대표 1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중요 방산물자의 정비 및 종합군수지원 등에 대해 군과 방산업체간 상호 의견교환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군 전력증강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위산업 토의회가 8월 16일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김상호 군수사령관 등 6개 관련기관 인사 및 대동기어 鄭泰現 사장 등 54개 방산업체 대표 1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토의회에서 방위산업진흥회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세계 긴장완화 추세에 따라 군비통제하에서도 안보유지 및 질적인 연구개발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의 군사력 건설 계획이나 연구개발방향의 큰 줄기를 업체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예로 지난 7월의 합참 토의회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군수사에서 업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안내용이라도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끝으로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오늘과 같은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며, 이와같은 토의회가 보다 일찍 개최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며, 더욱 심도 깊고 내실있는 토의회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年 1회의 정기적인 개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방산업체는 첫째도 둘째도 국방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로 군 전투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군과 업체간에 상호 긴밀한 유대를 희망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호 군수사령관은 『금일의 토의회가 방진회 柳俊馨 상근부회장께서 군수사를 방문하여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많은 해외도입 부품이 생산중단으로 부품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품개발에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을 역설하였다.

이번 토의회는 군수사와 방산업체간 최초로 개최된 토의회로서, 업체의 높은 관심속에 군수사 및 정부관련기관과 업체간에 상호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